페루 여행

김진홍 (68)

콜럼버스 (Columbus)는 인도로 가려고 하다가 우연하게도 신대륙을 발견한다. 사실 인도로 가는 길은 옛부터 잘 알려진 비단길 이었으나 돌궐족이 아시아쪽 터키 즉 아나톨리아 평원에 자리잡고 이스람으로 개종하고 버티고 있어 어쩔수 없이 바닷길을 새로 찾아 나갈 수 밖에 없었다. 그때 유럽인들은 소금에 절인 고기를 먹었는데 미각적 욕구 때문에 향신료인 후추를 원했고 그것을 인도에서 가져다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을 가기를 원하였다.

이탈리아 제노아 출신인 콜럼버스는 포르트갈에 정착을 하여 귀 부인과 결혼하였다. 그는 서쪽으로 가면 인도로 간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폴투갈 당국에 향해 지원을 요청 했으나 거절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 하지 않고 스페인에 다시 지원 요청을 하였다. 당시 스페인은 남쪽에 있는 이슬람 세력을 정복하고 그 여력으로 콜럼버스에게 산타마리아등 배 세 척을 지원해 주었다.

그는 향해 도중에 생각지도 못한 신대륙을 발견하였고 그 섬을 산 살바돌(san Salvador,구원의 섬) 이라 명명하였다. 하지만 그는 1506 년에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의 부하들은 파나마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큐바 도미 니카에 원주민 찾기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탄 배는 유카탄 반도에서 좌초하게 되고 그곳에서 콜테즈는 아즈텍 문화를 멸망시키고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남쪽으로 향해 잉카제국을 멸망시켰다.

잉카제국 (Inca Empire)은 1521 년에 멸망하여서 스페인 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신보다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하여 카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후 유럽에서 일어난 변화즉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에 반기를 들었던 스페인이 그에게 정복 당하게 되고 쇠약해지니 이때를 틈타서 페루 (Peru)는 1800 년 산 마틴 (san Martin)의 독립운동에 힘입어 1521 년 잉카제국 멸망이후 약 300 년만에 독립을 하게 된다.

페루의 수도 리마 (Lima)는 태평양 연안에 자리잡고 있으며 비가 오지 않아서 급수 차가 나무에 일일이 물을 줘야 한다. 남극에서 적도쪽으로 흐르는 훔볼트 한류의 영향으로

바다 수온이 내려가 비는 안오고 가끔 잉카의 눈물이라는 안개만 낀다고 한다. 엘니뇨 (작은 남자아이) 는 적도지방 태평양에서 해류가 더워지는 현상이고, 그래서 미국의 서북부가 겨울에 더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라니뇨 (작은여자아이) 는 해수가 차가와지는 현상을 말한다.

처음 리마에서의 방문지는 라마스 광장인데 대통령궁 카톨릭 교회 와 산 마틴 동상이 있으며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된 이름난 거리 (명동 거리와 비슷)를 돌아 보았다. 점심식사는 태평양 해변가에 있는 식당에서, <세비체> 라는날 생선요리를 시식하였는데 일본 요리에 영향을 받은 퓨전요리로 생선에 라임즙을 치고 양파를 썰어 넣은 것인데 현지인 에게는 인기가 높을지 모르나 우리 일행들은 초고추장 생각이 간절했다. 오후에는 잉카시대 유물을 전시한 박물관을 갔는데, 특이한 점은 그들에게는 문자가 없어서 생활상을 도자기에 그림으로 남겨 놓았다.

페루 리마에서 독립운동가 산 마틴의 동상

다음날 우리가 향한 꾸스꼬는 리마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반 걸리는 해발 3400 미터에 위치한 백두산 보다 높은 고원지대 이다. 잉카 시대 수도였는데 방문할 곳도 많아 거리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고산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루전에 다이아막스를 복용 하였다. (그 약의 고산증 작용 기전은 확실치는 않지만 카로티드 바디(carotid body)에 자극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짐). 하루에도 사 계절이 변한다고 하는 꾸스꼬 날씨에 맞추어 아침에 리마에서 두꺼운 옷으로 갈아 입으니 리마에서는 더웠 다. 페루 공항관리는 독일 회사에 맡기고 있어서 물건을 분실 하지 않는다고 한다.

고산지대 에서 개인적으로 주의할 점은 화장품이나 치약두껑을 꽉 닫아야 밖으로 흘러 나오지 않는다. 몸안에 있는 깨스도 쉽게 방출 된다. 사람들이 꾸스꼬에 오면, 고지 적응이 안되어 있음으로 숨이 가빠지고 현기증이 나며 많이 걷거나 오르막 길을 걸으면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야 한다. 잉카 왕궁 꼬리깐차 의무실에서 혈중 헤모그로빈 산소 포화 상태 (Pulse Oxymeter) 를 재어보니까 정상에 훨씬 미달이었다. 그러나 나는 견딜만 했다.

꾸스꼬 관광은 라마스 광장과, 카톨릭 성당 그리고 꼬리깐차 왕궁을 돌아보는 것이었다. 꼬리깐차는 잉카의 황금기를 이룬 황제의 이름이며 원래 황금으로 치장 돼었던 왕궁은 스페인 정복자 들에게 약탈 당하였다고 한다. 잉카인들의 건축 기술은 뛰어 나서 지진에도 견디어 내는 석조 건물을 지었고 돌과 돌 사이의 맏 물림을 안정하고 고정시키는 기술을 사용 하였다.

점심 식사는 꾸스꼬 현지식인데 일행 한분이 보라빛 옥수수 음료를 마시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긴장했으나 베나드릴을 먹고 천천히 회복하였다. 우리 여행 가이드가 꾸이 (cuy) 라 하는 기니아 픽(guinea pig)을 구은 음식을 준비했으나 아무도 먹지 않았다. 이날 오후에는 잉카시대 요새로써 스페인 정복자에게 마지막으로 저항하다 무너진 삭사이 라망을 돌아보았는데 비 구름과 번개가 몰려와 우리는 포기하고 버스에 남아 있었다.

꾸스꼬에서 오늘 숙소인 신비의 계곡에 있는 우루밤바는 우루밤바 강 옆에 있는 평원인데 이곳으로 내려가는 길은 대관령 산길을 내려 가는것 같은 험한 길이고 내장을 뒤집어 놓는다. 이곳은 민가도 드물게 있는 산골인데 좋은 호텔은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마침내 도착한 곳은, 미국에서도 4 성 급으로 평가될 호텔인데 우리일행 모두가 놀랐읍니다. 이 호텔

이름은 아란와 호텔이고 이곳은 규정상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어 2 층으로 짓고 조경이 특히 잘된 아름다운 숙소이다.

마추피추(Machu Picchu) 로 가는 날에는 고산 지대 대비한 약을 안 먹어도 된다. 이 여정이 이번 여행의 크라이 막스! 바뿐 일정을 위하여 일찍 일어나 버스로 기차역 '오란와이땀보' 역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잉카 기차를 타고 마추피추역에 내려 짐을 맡겼다. 그리고 가파른 산을 지그재그로 오르는 버스를 타고 마추피추 입구에 도착한다. 여기에서는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여권도 검사 했다. 일단 입장하면 돌로 만들어진 산비탈 길을 아슬아슬하게 걸어서 산 정상에 오르는데 정상에서 마추피추는 내려 가야 한다.

아직도 누구에 의하여 지어 졋는지 아무도 모르나 아마도 1400 년경 그때 유명했던 꼬리깐차 황제에 의하여 세워졌을 것으로 추측한다 . 그러나 이러한 유적이 1911 년 예일대 고고학 교수 하이람 빙햄 (Hiram Bingham)에 의하여 발견 되었다는 사실은 잉카인들에게 문자가 없어 기록을 남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속에 숨어 있어 스페인 정복자들도 몰랐던 것이다. 정말 마추피추로 가는 잉카 트레일은 험한 길이라 보통 사람은 갈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구전으로 전해오는 전설을 믿었던 하이람 빙햄은 당나귀에 등짐을 지우고 탐험에 나섰던 것이고 결국 1911 년 드디어 수백년 숲속에 숨겨진 도시를 발견한다.

여기서 잠깐 페루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가 한다. 페루 사람들은 감자를 주식으로 하고 옥수수는 막걸리를 만들거나 음료수를 만든다고 한다. 막대기 끝에 빨간색 천으로 싼 둥근 봉을 매달은 집은 막걸리 파는 집을 의미하고 파란색 봉은 접대부가 있는 집을 의미한다. 오로데사 라는 마을은 빵 굽는 마을인데 일반 집에는 높은 온도 까지 올라가는 화덕이 없어서 여기서 빵을 구워 가정에 공급 한다고 한다. 집은 황토를 구워서 만든 벽돌을 쌓아 만드는데 황토에 석회가 섞여서 시멘트 역활을 해서 튼튼하게 집을 지탱하나 물에 침수되면 허물어져 홍수에 취약 하다. 퀴노아는 조와 비슷한 곡물인데 페루가 주 생산지이다. 고산지대에는 나무가 안자라는데 호주에서 유칼립투스 나무를 들여와 식목해서 2500 미터 고지에서 잘 자라고 있다.

비와 안개 낀 마추피추에서

우루 밤바에서 뿌노로 가는길은 450 킬로인데 안데스 산맥의 계곡 사이에 평야지대가 있고 강이 흐르며, 밀 보리 옥수수등 농사를 짓고 양 소와 알파카를 방목 하고 있다. 감자는 페루가 원산지이고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처음에는 관상수로 유럽에 수입하였고 스페인을 통하여 프랑스로 가고 마리 안토아넷 은 감자꽃으로 머리를 장식할 정도로 유행 하고 푸르시아의 프리드리히 대왕은 감자 독소를 제거해 식량화 해서 강력한 국가건설에 원동력이 돼었고 영국 아일랜드를 통하여 미국으로 들여 왔다. 4000 미터가 넘는 고지에는 큰나무도 자라지 않아 땔감이 없어 야마똥을 땔감으로 쓰고 있다.

뿌노가는 고원지대에서 보는 특이한 라마

티티카카 호수 주변에 있는 뿌노는 해발 3800 미터에 위치한 도시로 서둘러 몸을 움직이면 숨이 가빠오고 약간 두통도 느낀다. 뿌노는 인구 20 만명 이 사는 도시 이다. 티티카카 호수에는 갈대를 엮어서 물위에 띄우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원주민이 옛날 관습 대로 살고 있다. 그러나 현대화의 물결은 어쩔수 없어 갈대로 만든 그들의 움집에도 텔레비젼은 있다. 한국 사람들이 준 동요 테이프를 듣고 아이들이 한국 동요를 부른다. 티티카카 호수는 베라쿠차라는 페루인의 조상이 시작한 전설이 있는 신성한 곳이고 스페인 점령하에도 변함없이 전통을 이어온 우로섬 사람들이 살고있고 지금은 초등 학교와 우체국이 있고 중학교 부터는 배를 타고 뿌노로 통학을 한다. 뿌노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의 후리아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고산 증세는 염려 안해도 된다. 그동안 약도 복용하고 조심도 해서 아무 탈없이 지냈다.

티티카카 호수에 사는 원주민들

리마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범 아메리카 고속도로는 알라스카에서 칠레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도로이고 왼쪽은 사막 오른쪽은 태평양이다. 포스코 (Posco)에서 깨스터빈 발전소를 세웠는데 공업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물이 귀한 사막이므로 주민의 반대로 지금은 바다물을 처리해서 사용한다고 한다.

빠라까 (paraca)는 리마에서 남쪽으로 100 여 킬로 떨어진 곳인데 여기에서 발레스타스 (balestas) 섬은 배로 약 30 분 걸리는 물새 천국 이다. 약 180 여종의 새와 수 백만 마리의 물새가 세개의 섬에 서식하고 있고 페리칸 그리고 남극 한류의 영향으로 펭귄도 있다.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의 갈라파고스 (Galapagos) 라 하는 섬이다. 이곳에서 새똥을 정기적으로 채집해서 비료로 쓴다고 한다.

이 태평양 연안은 사막인데 곳곳에 안데스로 부터 내려오는 물 줄기 따라 녹지대가 형성되고 농사를 지으며 때로는 대기업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파프리카 땅콩 아스파라가스 양파와 오랜지를 생산하고 특히 아스파라가스는 미국에 수출한다.

나스카 라인은 사막에 동물 형태를 그려 놓은 것이며 어떤 그림은 크기가 사방 50 미터 이고 어떤 그림은 길이가 200 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지상에서는 인식을 못하고 비행기에서 봐야 알 수 있다. 이곳의 돌은 철분을 함유해 검은색을 띄우고 있는데 파내면 흰 모래가 나오고 비가 안오기 때문에 그림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 한다.

이것은 기원전 5 세기 부터 기원후 5 세기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믿고 누가 무엇 때문에 그렸는지 확실한 정설이 없다. 미국인 폴 코석(paul kosok)이 1954 년 수로를 측량하다 우연히 발견하고 그림이 범상치 않아 보고하고 마리아 롸이히(Maria Reich) 는 이 그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존해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1994 년에 등록을했다. 지금은 세계 7 대 불가사의에 마추피추와 매년 걸러서 (every other year) 등재 된다고 한다.

나스카 라인 사막에 그려진 50 미터의 나무 그림. 길옆의 자동차와 비교

태평양 연안에 사는 페루인들은 산악지대 에 사는 사람들과 달리 얼굴색이나 체격이 서구인을 닮은 사람이 많이있다. 페루인의 45 퍼센트가 인디오이고 35 퍼센트는 혼혈이고 15 퍼센트는 백인이고 나머지는 흑인과 동양인이다. 동양인 은 중국사람이 제일 많다. 한국 교민은 극소수이고 우리의 여행 안내원 은 이명박 대통령 의 페루 방문 당시 수행원 이었다. 그리고 용의 주도한 준비로 좋은 호텔 좋은 음식 과 박식한 페루 설명으로 여행을 한층 즐기고 일행 전원 건강하게 여행을 끝마쳤다.